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Jul. 19, 2026

(통권 1115호)



오늘의 말씀

“최후의 승리”

[계 19:11~14]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찌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mailto: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http://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영적 전쟁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함께 싸우는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  
주십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는 FIFA 랭킹 1~4위 팀들이 모두 4강에 오른  
첫번째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4강전은  
역사적인 명승부였습니다. 86분까지 영국이 1: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Injury time까지 포함해 마지막 10분 안에 게임이  
뒤집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눈부신 활약으로 2: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경기는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기를 녹화를 해서  
다시 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1:0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 본문 강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왕으로 오십니다.

[계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싸우러 나오시는 모습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먼저 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승리는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로마 시대에 백마는

개신장군만 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 출정하시는 왕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셨었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 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재림의 광경을 노래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시편 45편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 45:1~3]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sup>의</sup> 붓끝과 같도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3)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시 45:5~6]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6)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본문이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들이 그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 개의 이름을 붙입니다. “Faithful and True; The Word of God;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계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Faithful and True)”입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신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 우리의 승리가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입니다.

[계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은 [λόγος(로고스)] 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는 레마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 로고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레마는 영원한 로고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왕, 주의 주(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계 19:16)” 입니다.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 위의 왕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존재들의 서열(Rank)을 보았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서열들(Rank) 위에 계신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모든 권세의 피라키드 그 위에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은 이미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벗어나 타락하고 반역을 시도한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의 마지막을 보여 줍니다.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로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골로새서 2장을 다시 기억합니다.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여기 “무력화하다”는 헬라어의 [ἀπεκδυσάμενος(아페크뒤사메노스)] 로서 “무장을 벗겨 버리다, 철저히 무장해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승리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승리가 영원히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Position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시리즈의 2주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Condition vs. Position”, 우리의 Condition은 지금도 흔들립니다.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병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Position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생명책으로 설명합니다.

[계 21:26~27]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후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눅 10: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은 아직도 완전히 성숙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해 온 Position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충성하다"는 [πιστός]입니다. 바로 Faithful 즉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첫번째 이름도 Faithful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Faithful 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Faithful King을 따르는 그의 Faithful Sol-diers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왕의 군대 군사들의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 [딤후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good fight)을 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낸 많은 충성스런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자 굴로 들어가면서도, 화형장으로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왕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은 실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 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결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늘의 전쟁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은 어린양의 승리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도 포인트 입니다.

A. 주님, 전쟁의 결말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 B.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 C. 어떤 상황에서도 Faithful King을 따르는 faithful soldier로 살게 하소서.
- D.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